

1990년대 이후 진도군 농민활동가들의 생활상의 변화 -사회경제적 상황, 가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정기* · 홍성흡**

The Changes of Peasant Activists' Life in Jindo-gun since 1990s -Focusing on changes of socio-economic situation and values-

Choi, Jung Gie* · Hong, Sung Heup**

요약 :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농민들의 대응 형태 및 생활상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진도지역의 농민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드러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운동의 약화와 희망의 부재이다. 이들은 그동안 적극적인 농민운동을 통해 그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했지만, 삶의 조건은 악화되었다. 그 결과 농민운동 자체가 약화되었으며, 별다른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둘째, 경제상황의 전반적인 악화와 출구의 부재이다. 진도지역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양극화 경향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궁핍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농민들 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돈과 자존감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농사가 현실에서는 배제되고 무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지타산의 악화는 농민들에게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요어 : 구조적 변화, 농민운동의 약화, 경제적 궁핍화, 자존감의 약화

Abstract : This study is planned to discover the behavior of Korean peasants cope with the changes of structure last 30 years. So, I have surveyed the activists of Jindo Peasants Association through questionnaire. The outcome of survey are as follows; First, Peasants movement have been become weakened and the hope of future have disappeared. Although they have resisted the pressure of structural changes zealously, their life conditions have worsened. So, Peasants movement have been become weakened and they have no alternative choice. Second, The economic situations of all activist those who surveyed have worsened and there is no exits. If looking only at the surface of things, the socio-economic situations of Jindo peasants activists show a tendency to polarization. But, to tell the truth, overall immiseration have occurred at Jindo area. Third, confusion of their sense of values and weakening of self-esteem have occurred among the Jindo peasants activists. It is because that farming which is evaluated high in respect to cultural and industrial perspective, have been eliminated and disregarded. Especially, worsening of earnings and expenses make the peasants to be in the worse situations.

Key Words : cultural changes, weakening of peasants movements, economic immiseration, weakening of self-esteem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43395)

*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gchoi@chonnam.ac.kr)

**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ibung@chonnam.ac.kr)

1. 문제제기

세계적 견지에서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회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다양한 변화의 압력에 직면해 왔다. 그런데 이 시기의 변화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대체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압력은 시간적으로 동시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구조적이며 반(半)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의 지역사회에 밀어닥친 변화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변화의 압력은 1990년 전후의 우루과이 협상을 계기로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이었다. 이는 개별 국민경제의 세계경제에 대한 관계적 민감성과 체계적 취약성이 현저하게 증대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국가 및 지역(local)은 다른 국가 및 지역과 무한 경쟁에 돌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대안을 찾을 것인지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둘째, 정치적 민주화가 초래한 변화였다. 한국사회에서는 1987년의 민주화 전환과 1995년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지역사회의 정치구도가 빠르게 변화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가장 가시적인 현상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화되어 왔으며, 정당과 사회단체들 및 사회운동 조직들이 얽히면서 지역사회의 정치구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셋째, 1990년대 이래 이루어진 정보화의 가속화는 지역민의 시공간적 개념은 물론 생활패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인간의 내면세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적 이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

부의 공적 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 관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자발적 정치참여가 증가되고 있다(김용철, 2010).

그런데 한국의 경우 세계화 연속체의 한 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의 압력을 경험한 곳은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논의되는 발전담론은 도시화와 산업화 중심의 발전으로 농업의 배제 및 농민의 탈농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에서 말하는 세계화와 그에 따른 시장개방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농업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나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강렬하게 저항한 집단이 농민이라는 사실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세계화를 비롯한 이들 구조적 변화에 단지 저항만 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사실 농민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며, 매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훨씬 다양한 대응방식을 구사했을 것이다. 그들은 때로는 정부지원에 의존하기도 하고, 새로운 영농부문을 모색하기도 하며, 저항적 전략을 구사하면서 대응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버린 오늘날의 시점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의 생활상은 농민들이 그러한 변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남지역의 농민들 중에서도 진도지역의 농민들이며, 그 중에서도 최소 25년 이상을 농민운동 활동가로 살아온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2.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내용

1) 기존 연구 검토

농업의 쇠퇴 과정을 반영하듯,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농업 및 농촌사회, 그리고 농민에 대한 연구 자체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이 연구의 주제인 1990년 전후 사회변동과 농촌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연결시킨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다만 세계화현상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길성, 1991; 윤병선, 2005; 장상환, 2012)과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농업정책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장상환, 2006),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농민운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박길성, 1994; 윤수중, 1997; 2002)이 있다.

먼저 1990년 전후부터 세계화의 진행과정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자. 이 연구들에서는 1986년부터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1995년에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시작된 여러 나라와의 FTA 협상 등으로 구체화되는 세계화현상이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윤병선(2005)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농업지배이며, 한국 정부의 농업정책 역시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량주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장상환(2012)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농업지배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농민의 빈농화로 빈농 및 이농자의 대량 발생, 생태위기, 농산물 가격 폭등 및 식량위기 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들은 세계화가 농업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농민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장상환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이에 저항하는 농

민운동과 소비자운동으로부터 도전받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당위론적인 주장일 뿐이었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농업정책의 변화를 추적한 장상환(2006)을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업의 존망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정부 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조건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농업소의 정책만을 전개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함께 농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및 변화에 대한 농민들의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의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계급구조 등을 변수로 하여 농민운동을 분석한 김태일(1991)과 농민층의 일상적 저항행위에 관심을 가진 박길성(1994), 그리고 세계자본주의의 한국농업지배라는 지배구도와 그에 맞서 이루어지는 농민들의 적응 및 돌파전략을 분자적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윤수중(1997)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오늘날의 농민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연구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농민운동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파장이 거세게 밀려왔던, 그래서 농민운동이 대규모로 발발하였던 최근 20년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농민운동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든다. 나아가 농민운동에 초점을 맞춘 결과 생존의 위기를 맞은 농민들의 다양한 대응을 엿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의 농촌에서 생존

의 위기에 처한 농민들은 농민운동을 통해 그것에 저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현재 농촌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농민층 분해 현상도 그러한 대응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및 민주화와 정보화라는 거대한 구조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농민들이 다양하게 대응한 결과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진도군은 일부 해안마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 중심의 지역이다. 구기자나 울금 등 일부 특용작물의 특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 비중이 큰 것은 아니며, 도회

지와 떨어진 지리적 조건 때문에 시설원예나 화훼 등 고소득 작목은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전통적인 농작물 재배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쌀과 보리를 중심으로 배추와 대파, 고추 등을 많이 재배한다(진도군지편찬위원회, 하편: 30쪽). 특히 진도군은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간척사업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타 지역에 비해 대규모 쌀농사(수만 평 규모)가 가능한 지역이다(진도군지편찬위원회, 2007 상편: 259-269). 이러한 점들이 진도지역 농업경영의 특징이자 한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진도지역의 농민들은 1990년을 전후해서 시작된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농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진도지역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내용 및 구체적인 질문들은 아래 표 1과 같

표 1. 질문지 내용

질문 내용	구체적인 질문 항목들
1990년대 무렵의 경제적 형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농사는? 쌀농사, 밭농사, 혹은 축산업인지? - 농업규모는? 토지소유형식은? - 농업경영방식은? 가족노동인지 임노동을 고용하는지? - 갖고 있던 농기계는? 부채는 어느 정도?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된 농사는? 쌀농사, 밭농사, 혹은 축산업인지? - 농업규모는? 토지소유형식은? - 농업경영방식은? 가족노동인지 임노동을 고용하는지? - 갖고 있는 농기계는? 부채는 어느 정도? - 정부 정책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그 방향은?
농민운동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운동에 참여하게 된 과정은? - 1990년대 농민운동의 이슈는? 주된 운동방식은? - 오늘날 당시의 운동을 판단한다면 성공적이었는가? - 오늘날 농민운동의 이슈는? 주된 활동방식은? - 1990년대와 오늘날의 농민운동을 서로 비교한다면? - 앞으로 농촌의 변화방향은? 그 가능성은?
개인의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가족관계 및 자녀들의 교육상황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 외에 누구와 상의하는지? - 농사짓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 그동안 농사를 그만 두려고 해보았는지? 이유는? - 자녀들이 농촌에 산다면 허락하겠는지?

다.

조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농업경영상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다. 여기에는 주된 작물과 경영규모, 경작방식, 농가 부채 등을 중심으로 개별 농가의 경제상황의 변화를 밝혀보고자 했다. 두 번째는 농민운동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농민운동 이슈의 변화는 있었는지, 운동의 형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까지의 농민운동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사항과 함께 농민으로서의 자존감 및 미래에 대한 전망 여부를 질문하였다. 즉 개인적인 인식의 변화와 농민운동의 변화, 그리고 경제적 생활상의 변화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삶을 드러내보려고 한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199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농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활동가들이다. 진도지역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1987년 6월 항쟁에 이를 때까지 별다른 사회운동이 없었다. 그러다가 1987년이

넘어서면서 사회운동 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가톨릭농민회가 결성되면서 농민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가톨릭농민회 조직과 일반농민들이 합쳐서 1990년부터 지역농어민회를 결성하였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시기 핵심적인 활동가¹⁾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24명 정도이다(당시 활동가들의 공통적인 증언). 이 중 현재 다섯 명은 농사를 그만두고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19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 세 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조사는 16명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탈농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역시 중요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이농이었기 때문에 농촌 내에서의 다양한 대응방식을 다루는 이번 조사에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농촌사회에 붙어 닳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표 2. 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질문지 번호	현재 연령	주소지	1990년의 주된 농사	현재 주된 농사	농민운동 투신 시기	농민운동 투신 계기
1	63	의신면	쌀·밭농사	쌀·밭농사	1989	친구 권유
2	56	진도읍	쌀·밭농사	쌀농사	1988	학생운동 연장
3	54	지산면	쌀·밭농사	쌀·밭농사	1988	가농 가입
4	54	군내면	밭농사, 축우	축우	1989	자진 가입
5	61	군내면	쌀·밭농사, 축우	쌀·밭농사, 축우	1989	활동가 권유
6	56	군내면	쌀·밭농사	쌀·밭농사	1989	자진 가입
7	63	의신면	쌀·밭농사	쌀·밭농사	1989	친구 권유
8	50	고군면	쌀·밭농사	쌀농사, 노동	1990	선배 권유
9	63	지산면	쌀·밭농사	쌀·밭농사	1988	활동가 권유
10	56	군내면	쌀·밭농사	쌀·밭농사	1988	자진 가입
11	52	지산면	쌀·밭농사	쌀·밭농사	1988	자진 가입
12	52	지산면	쌀·밭농사	쌀·밭농사	1988	활동가 권유
13	60	지산면	쌀·밭농사	쌀·밭농사	1988	활동가 권유
14	60	의신면	쌀·밭농사	쌀·밭농사	1987	가농 가입
15	56	군내면	쌀·밭농사	우렁이 양식	1987	가농 가입
16	65	군내면	쌀·밭농사	쌀·밭농사	1987	가농 가입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개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에 반대하는 농민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들은 수입개방의 국면에서 시행된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입장과 대응하는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자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주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었고, 또 농민회원 등 지인들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적이고 공동의 선택이 가능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선택은 그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추론할 수 있었고, 그만큼 그들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농민운동 활동가들은 농민운동에 투신할 정도로 농사에 대한 애정이 있으며,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한국 농촌은 근대화과정에서 점차 인구가 떠나가는 곳이 되었으며,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대상이 된 농민운동 활동가들은 일정 수준의 학교교육을 마치고 자발적으로 농촌에 남겨나 돌아온 사람들이며, 최소 25년 이상을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농사를 지으면서 살겠다는 의지나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며, 농업의 장래에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및 장래의 생활 상태에 농업 외적인 요소의 영향력이 가장 적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자로서 의미가 있다.

3.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생활상의 변화

1) 농민운동의 약화 및 희망의 부재

진도지역에서 농민운동이 시작된 것은 가톨릭 농민회가 만들어진 1988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1989년부터 지역 군농민회가 급속도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사실상이 글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며, 농민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 변화가 정치적 민주화와 수입개방 압력으로 남아있다. 즉 농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구조적 변화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민주화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개방 압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속에서 진도지역의 농민운동은 지난 25년간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전개해왔다.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은 농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이었다. 특히 정치적 민주화로 말미암아 형성된 정치적 공간이 이러한 농민운동의 폭발에 큰 힘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해마다 진행된 진도지역 농민운동의 이슈는 표 3과 같다.

대략 20년에 걸친 진도농민회의 활동상황은 대략 세 가지로 투쟁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수입개방반대운동이다. 그 명칭은 UR 반대운동, WTO 협상 반대운동, FTA 반대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수입개방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이 시기 진도지역 농민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투쟁사향이였다. 두 번째는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이다. 여기에는 쌀의 수매를 요구하는 운동과 대파 등 기초농산물의 제값 받기 운동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는 농가부채 해결 및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운동이 있다. 이 시기 진도지역의 농민들은 전국 어느 지역에 못지않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농민 동원이나 운동의 지속성 등만으로 본다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시기 농민운동

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응답에서도 나타난다. 즉 전체 응답자 16명 중 무려 14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부정적인 답을 한 두 사람은 영향력은 있었지만 농민들의 처지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농민운동이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답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답이 우세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

적으로 검토하면 다소 다른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농민운동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의 근거는 대체로 자신들의 활동 방식에 대한 것이다. 즉 자신들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운동을 전개했던 것 자체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농민운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건

표 3. 1988-2007년 시기 진도지역의 농민운동

일시	내용	비고
1988	고추생산비 보장, 전량수매, 수세폐지 서울상경투쟁	50톤 추가수매 확보
1990.12.22.	UR 거부 및 쌀값 쟁취, 전량 수매 진도 농어민대회	
1991.5.9.	노태우정권 타도와 쌀 수입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전교조 진도지회와 공동
7.10.	미국쌀 수입저지 및 전량수매 쟁취를 위한 진도군 농민대회	
11.22.	미국쌀 수입저지 및 전량수매 쟁취를 위한 진도군 농민대회	
1992.1.	미국쌀 수입저지 및 전량수매 쟁취를 위한 시위 전개 민주세력 당선을 위한 대선, 총선 투쟁	24일간 경운기 시위
1993.12.5.	쌀 및 기초생산물 수입개방저지를 위한 진도군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17개 단체 참가
12.12.	쌀 및 기초생산물 수입개방저지를 위한 진도군민대회	농기계반납시위로 연결됨
1994.3.26.	UR 국회비준거부 군민대회	해남과 연대투쟁
10.25.	UR 국회비준 저지와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진도농민대회	
1995	전두간척지 바닷물유입 피해보상투쟁 난시청지역 시청료 면제투쟁	진도군청 농기계 접거농성
1996.9.11.	식용 쌀 입고(入庫) 저지투쟁 의료보험 통합, 보험료 인하 투쟁	쌀 자급운동의 일환
1997	농협 대파계약사업비 45억원 미집행항의, 농가부채해결촉구	
1998	군청 농산과 해체반대, 부채해결, 금리인하 투쟁	군청 항의방문
2000	지자체에서 농협에 추곡수매 지원하게 함	진도대교 8시간 봉쇄
2001	대파투쟁(최저보장가격 실시, 대파폐기 보상)	5,000명 참여
2002	WTO 쌀 협상 반대투쟁 및 한·칠레FTA 저지투쟁 핵폐기장 반대 연대투쟁 승리	1박2일 100만 대항쟁
2003	한·칠레FTA 저지투쟁, 멕시코 칸쿤 투쟁 통일 쌀 모으기	통일운동 시작
2004	쌀 재협상 저지투쟁	군민 총투표 실시
2005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투쟁, 홍콩WTO각료회의 저지투쟁	
2006	한미FTA 저지 투쟁 대파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교육	
2007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	버스 45대 광주시청 방문

* 진도군농민회(2010)의 농민회 연혁과 진도군지(2007)를 참조하여 작성함

표 4. 진도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현재 농민운동에 대한 평가

항목	빈도	비중(%)
참여자들의 헌신성 부족으로 농민운동 약화	9	56.3
농민들 내부의 차이가 커지면서 농민운동 약화	1	6.3
중앙지도부 실책과 참여자들의 개인주의 심화로 약화	5	31.3
중앙지도부의 문제로 약화	1	6.3
합계	16	100.0

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기초는 오늘날의 농민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현재의 농민운동에 대한 활동가들의 평가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표 4). 이에 따르면, 농민운동이 잘 안 되는 이유로 농민운동 활동가들은 참여 농민들의 개인적인 문제(헌신성 부족, 개인주의, 사회경제적 차이의 심화 등)와 중앙 지도부의 실책²⁾을 꼽고 있다.

이와 같은 농민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농민운동의 약화는 사실상 농촌의 앞날에 대한 비전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응답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그동안 대중적인 수준에서 전개되어 왔던 농민운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는 별로 변한 것이 없으며, 수입 개방 역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고, 농민들의 처지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농민운동 활동가들이 제시하는 농촌의 회생방안이 현재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구도상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점에서도 전망의 부재와 부정적인 평가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진도 농민운동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농촌의 변화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우선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세 명이었다. 반면에 희망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식량자급 정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세 명, 가격보장 정책

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세 명이었다. 한편 조금 일반적으로 농업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세 명이 있었으며, 그 외 한 명씩이 답한 응답으로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지소유 상한제도(현재 양극화에 대한 대응으로)와 균형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고, 일반적인 응답으로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과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사실 이러한 정책들 중 일부는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지만, 농민운동 활동가 자신들도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2) 경제상황의 전반적인 악화와 출구의 부재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진도지역에서 농민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을 제외하면 농지가 1만평 이하였으며, 소를 키우는 경우에도 10마리가 넘지 않았다. 대체로 소농에서 중농 사이에 분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농민회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차이도 별로 없었다.

그런데 구조적 압력에 대응하면서 25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의 사정을 보면, 농민운동 활동가들은 뚜렷하게 두 집단으로 분화되었다. 토지소유 규모에 따라 분화가 발생하면서 한편에서는 농업규모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

표 5. 진도지역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농업규모(경작규모 및 소 소유)의 변화

항목		1990년 전후		현재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경작 규모	5천평 미만	4	25.0	2	12.5
	5천평~1만평 미만	9	56.3	3	18.8
	1만평~2만평 미만	2	12.5	7	43.8
	2만평 이상	1	6.3	4	25.0
축우 규모	10마리 미만	2	100	0	0.0
	10~50마리 미만	0	0.0	0	0.0
	50~100마리 미만	0	0.0	1	50.0
	100~200마리 미만	0	0.0	0	0.0
	200마리 이상	0	0.0	1	50.0

* 경작규모는 소유토지와 임차지를 모두 합한 것임. 소를 키우는 두 사람은 토지도 소유 및 임차하고 있음

는 농업규모를 축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즉 1990년 무렵에는 농토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데 비해 오늘날에는 두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1990년에는 1만평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한 명에 불과했었지만, 이제는 다섯 명에 이르고 있다³⁾. 여기에 임차농지까지 합치면 양극화의 경향성은 더욱 커진다(표 5). 경작규모로 판단할 때, 1990년 무렵에는 1만평 이하가 열세 명이고 1만평 이상이 세 명이었는데 비해, 이제는 1만평 이상을 경작하는 사람이 열한 명에 이르고 있다. 농업규모 면에서의 양극화현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극화의 경향성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예를 들면 농기계의 소유 여부나 농업노동력의 동원 형태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농업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작물로 전환을 시도하기도 한다. 우렁이 양식이나 대규모 쌀 경작, 대규모 시설하우스 등을 설치하기도 하고, 방울토마토나 표고버섯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두 사람 밖에 없어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소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에는 농업규모의 확대가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1990년 무렵에

는 두 사람 모두 10마리 이하를 키우고 있었던 데 비해 현재는 한 사람은 50마리 이상, 또 한 사람은 25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사 자체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토의 소유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특히 수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특정 작물의 파동과 그로 인한 작물폐기(예를 들면 2014년의 대파 폐기)는 농민들에게는 매우 큰 손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농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농지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농사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예를 들면 농기계를 산다거나 시설하우스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때문에 농사에 전념하는 농민들은 부채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서로 보증을 서다보니 어느 한 집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줄줄이 영향을 받으면서 농업 규모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 농업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이다⁴⁾.

그렇다면 농업규모를 확대한 농민운동 활동가들은 그들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것을 의미하는

가? 그렇지 않다. 왜 농업규모를 확대하느냐는 질문에 이들 활동가들은 단위별 이익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과거에는 5,000평에서 1만평의 경작으로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었지만, 수입개방과 그로 인한 농산물가격 하락, 농업생산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이제는 과거와 같은 농업규모로는 도저히 최소한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농토를 사거나 임차하기가 쉽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농사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 수지타산의 악화를 규모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며, 또 그러한 선택을 수월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조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정책 역시 부농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도지역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양극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초에는 중농 내지 소농 규모로 사회경제적 차이가 크지 않았던 활동가들이 25년이 지난 오늘날 한편으로는 부농과 대농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영세소농으로 갈라진 것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경향성을 양극화로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것은 이러한 양극화 경향

과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부채규모(표 6)를 연결시켜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부채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제외하면, 아홉 명이 5천만 원 미만의 부채를 갖고 있었으며, 부채가 없었다고 답하는 사람도 여섯 명에 이른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한편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밟은 사람이 다섯 명에 이르는 반면, 1억 원 이상 부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다섯 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즉 표면적으로 부농이나 대농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부채 역시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경영규모의 변화와 무관하게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통해 부채를 청산하고, 영세소농이나 순수 임차농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농업경작규모와 부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파산한 사람이 2만평 이상을 경작하는가 하면, 1억 이상의 빚이 있는 사람이 경작규모가 1만평 미만이기도 한다. 부채 규모와 농업 경영규모 사이에 함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파산이나 개인회생한 사람들 중 일부가 대규모의 임차농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진도지역 농촌에

표 6. 진도지역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부채규모의 변화

항목	1990년 전후		현재	
	빈도	비중(%)	빈도	비중(%)
파산(혹은 개인회생)으로 청산	0	0.0	5	31.3
없음	6	37.5	3	18.8
1천만원 미만	3	18.8	0	0.0
1천만원~5천만원 미만	6	37.5	1	6.3
5천만원~1억원 미만	1	6.3	2	12.5
1억원~2억원 미만	0	0.0	3	18.8
2억원~5억원 미만	0	0.0	1	6.3
5억원 이상	0	0.0	1	6.3

표 7. 2014년의 경작규모와 부채현황

구분	2014년 부채 현황							전체
	파산으로 청산	없음	1천만원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2억원 미만	2억원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천평 미만	1	0	1	0	0	0	0	2
5천~1만평 미만	2	0	0	0	1	0	0	3
1만~1만 5천평 미만	1	1	0	1	1	0	0	4
1만 5천~2만평 미만	0	1	0	0	1	0	1	3
2만평 이상	1	1	0	1	0	1	0	4
전체	5	3	1	2	3	1	1	16

* 농지 경작규모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축우농가(2명)의 규모는 반영되지 못함

있는 집을 살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간척지가 많은 진도지역의 특성상 이러한 생존방식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농민의 처지를 고려해야 할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놓았지만, 농민들은 그러한 정책 자체가 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사정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도지역의 농민들은 표면적으로는 양극화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가치관의 혼돈과 자존감의 약화

진도지역 농민운동 활동가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가 대략 1980년대부터이며, 짧게는 20년 이상, 길게는 35년 정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의 사회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저항하여 25년 이상 농민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농업경영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가면서 농사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며, 국가에 대해서도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수 많

표 8. 농사에 대한 자부심 여부

항목	빈도	비중(%)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	6.3
갖고 있다.	4	25.0
힘들지만 어느 정도 있다.	5	31.3
별로 없다.	3	18.8
갖고 있지 않다	3	18.8
합계	16	100.0

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사정은 악화되었으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점점 더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농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표 8).

수많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아홉 명의 응답자가 농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응답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이들의 답은 중의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터전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농민 활동가들이 주장하는 자부심의 근거는 농업 자체에 대한 평가였다. 이들에 따르면 농업만큼 자연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산업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자연적인 환경을 보존하면서

인간의 삶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산업이 농업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농민들은 모두가 경영자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래서 농촌이 사라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이 농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요인들이었다.

반면에 농민운동 활동가들이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즉 농기계나 비료 값 등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올라가는 데 비해 농산물 가격은 매년 정체되거나 하락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며, 그 결과 농사짓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나 사회에서 농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기 어렵다는 대담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무시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경우는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주장에 별다른 반향이 없을 때라고 한다. 농촌지역에 문화적인 혜택이 없는 것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농사짓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부채만 늘어났을 때, 농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사를 중단하려는 경우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확히 대립되는 두 방향의 응답을 하였다. 즉 ‘자주 있었다’는

응답이 다섯 번이고, ‘가끔 있었다’는 응답이 세 번인데 비해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도 다섯 번이고, ‘한 번 있었다’는 응답도 두 번이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응답이 한 번이었는데, 이 답을 생각한 적 없다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응답자들의 대답은 정확히 반으로 갈린다. 결국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농촌과 농사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농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사회적 수준의 배제전략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자녀들의 농업 종사여부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농촌이나 농업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들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절반인 일곱 명의 응답자가 자녀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허락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물론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사람도 네 명이나 되지만, 그 외의 응답자 역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활동가들은, 현재의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과 농업에 대한 강력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4. 결어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대체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압력은 시간적으로 동시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구조적이며 반(半)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조적 변화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농촌에서 농민들이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표 9. 자녀들의 농업 종사 여부에 대한 생각

항목	빈도	비중(%)
권한다.	3	18.8
권하지는 않지만, 한다고 하면 허락한다.	4	25.0
자신있다면 허락하지만, 불가능할 것이다.	1	6.3
절대 허락할 수 없다.	4	25.0
생각한 적 없다.	4	25.0
합계	16	100.0

그리고 그 결과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검토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농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진도지역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이유는, 첫째, 이들이 농촌사회에 불어 닳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들 농민운동 활동가들은 농민운동에 투신할 정도로 농사에 대한 애정이 있으며,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조적 변화 속에서 농민운동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첫째, 농민운동의 약화와 희망의 부재이다. 이들은 그동안 농민운동에 헌신했지만, 그 구체적인 평가를 보면 자신들의 활동방식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에 운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즉 자신들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운동을 전개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렇게 헌신적인 운동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건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운동은 점차 자신의 활동기반을 잃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에 빠지고 있다.

둘째, 경제상황의 전반적인 악화와 출구의 부재이다. 진도지역 농민운동 활동가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양극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초에는 중농 내지 소농 규모로 사회경제적 차이가 크지 않았던 활동가들이 25년이 지난 오늘날 한편으로는 부농과 대농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영세소농으로 갈라진 것이다. 그렇지만 속사정을 보면, 양극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궁핍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표면적으로는 부농이나 대농으로 나타난 사람들도 그 부채 규모를 보면 농업규모의 증

가를 초과할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경영규모의 변화와 무관하게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통해 부채를 청산하고, 영세소농이나 순수 임차농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전반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형편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찾기 어렵다.

셋째, 가치관의 혼돈과 자존감의 약화이다. 농촌 및 농업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는 농민들에게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오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농사가 현실에서는 배제되고 무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치타산의 악화는 농민들에게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농민들은 농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약화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농민이 농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조사대상이 되었던 농민활동가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지 않았다. 그들은 조직적인 수준에서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망은 불확실하다. 문제의 해결 방식은 분명했다. 그것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자조적인 수준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문제의 해결은 농촌과 농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들이 바뀌고, 그 결과로 정부정책의 기조가 바뀌어야 가능할 것 같다.

주

- 1) 각 면 단위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농민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고, 진도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이나 광주 등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농민회 주최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

- 여하였으며, 내부적으로 농민회의 주도세력이라는 인정 및 자의의식이 있는 활동가들을 지칭한다.
- 2) 여기서 말하는 중앙지도부의 실책이란 농민회가 민주노동당에 참여하는 등 정치투쟁을 제1의 과제로 설정한 것을 말한다. 진도 농민회에서는 정치투쟁에 반대하면서 지역 농민들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농민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입장이었다.
 - 3) 조사결과에 따르면, 토지소유 규모가 1990년 무렵에는 5,000평 미만 6명, 5천 평에서 1만 평 미만 9명, 2만 평 이상 1명이었는데 비해, 2014년에는 없음 2명, 5,000평 미만 5명, 5천 평에서 1만평 미만 4명, 1만평에서 2만 평 미만 3명, 2만 평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 4) 이번 조사대상 중 노령화 때문에 농사규모를 줄인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의 연령이 60대 중반으로 아직 체력적인 문제로 농사를 그만 둘 정도가 아니라는 점과 이야기 속에서 수지타산의 문제나 농외소득의 문제가 농사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노령화 요인은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문헌

김용철, 2010, "네트워크 사회와 정부-시민관계," *오토피아* 25(2), pp.103-130.

박길성, 1991,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민·농업, 그 총체적 이해," *사회비평* 5, pp.306-372.

박길성, 1994, "일상적 저항의 정치-농민의 생존전략, 계급형성 그리고 사회변동," *경제와 사회* 23, pp.231-252.

윤병선, 2005,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우리 농업의 미래,"

환경과 생명 43, pp.50-64.

윤수중, 1997, "농민운동의 전개와 새로운 과제," *농민과 사회* 15, pp.34-46.

윤수중, 2001, "농촌내부의 경제력 집중에 의한 농민층분해와 농민간 갈등," *농촌사회* 11(2), pp.67-95.

윤수중, 2002, "21세기 농촌지역의 조직화와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 *농업기술회보* 39(6), pp.7-11.

장상환, 2006, "오늘의 현실에서 다시 본 한국의 농업정책," *내일을 여는 역사* 23, pp.24-43.

장상환, 2012, "세계화와 농업문제의 전환," *마르크스주의연구* 9(3), pp.134-183.

진도군지편찬위원회, 2007, *진도군지 상·하*.

진도군농민회, 2010, *진도군농민회20년사*, 미발행 자료모음집.

Mies, M., 1999, "생존이나 세계화냐? 21세기의 경제분수령," *아시아여성연구* 38, pp.199-212.

교신: 홍성흡, 500-757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전화: 062-530-2695, 이메일: sibung@chonnam.ac.kr

Correspondence: Hong, Sung Heup, Department of Anthrop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ro 77, Buk-gu, Gwangju 500-757, Tel: 82-62-530-2695, E-mail: sibung@chonnam.ac.kr

최초투고일 2014년 5월 6일
수정일 2014년 5월 18일
최종접수일 2014년 5월 23일